



# 말

박 영 우

〈대구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장〉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소리를 낸다. 인간은 이 태어날때의 눈물도 없는 소리를 「운다」고 한다. 동서양 모두 「운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보면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내는 소리인지 알수가 없다. 이 소리가 하나의 발성이지 언어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린애기의 이러한 울음소리는 곧 엄마와의 대화역할을 하게 된다. 언어가 아니지만 엄마는 모성애로서 알아듣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교류를 바탕으로 감탄사에 속하는 말부터 시작되어 차츰 엄마 파파하다가 젓 밥 등의 명사를 말한다. 다음엔 「취」, 「가」 등의 동사를 익혀서 두살말경이 되면 「아— 엄마 밥취」라는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2년만에 아이가 바라는 모든 의사를 전달할 만큼 다 배우지는 못하고 형용사 부사등이 첨가되어 나이가 한살씩 더 먹을수록 「맛 좋은 밥을 빨리 달라」고 말 할줄 알아 상당한 경지에 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도 나이 먹은 것 만으론 부족해서 계속 단계를 높은 교육을 받는다.

원래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언어 발달론을 다루자는게 아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닭고 같고 배워도 「말」이란 참 어렵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잘못 말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말다툼 가운데 흔히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서로 고향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정신과 환자가운데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마음의 병에 의해서 횡설수설 말이 안되는 현상을 본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쓰는 단어를 순서없이 마구 흩어 놓은 듯 하다. 이병은 일차적으로 생각하는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생각의 표현방식인 「말」의 고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심하면 망상이라해서 옳지 않거나 이세상에도 없는 것을 믿

게 되고 환각이라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도 듣고 우주인도 보게 된다. 환자의 소망인듯 하느님도 되어 보고 우주인도 되어 본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병 가운데는 「감정」이 고장나도 「말과 행동」의 고장을 초래하는 병이 있다. 조울증이라해서 기분이 지나치게 좋아 지면 말이 많아지고 빨라지며 더욱 심해지면 수많은 단어만 쏟아내어서 결국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게 된다. 반대로 기분이 우울해지면 말이 적고 끝내는 말 한마디 없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은 그들이 횡설수설하는 말이건 마구 쏟아붓는 말홍수이건 심지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무언의 말까지도 알아 들으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같이 지냄으로써 마침내 알아 듣게 된다. 즉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맺기 시작하면서 환자의 언행도 회복을 보이게 된다. 더 우기 놀라운 것은 혼란된 정신병 환자라도 남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지적과 언급은 너무나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거울같이 마음씨 맑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순점을 짚어 내듯 말이다.

그런데 이 세상엔 애기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성인들이 많은 것 같다. 거기다가 남의 말을 잘못알아듣는 이도 많아지는 것 같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기 자신이 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왜 남의 소리를 빼박하게 듣는지 서로가 그 이유와 동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과 개인사이를 넘어서 사회적 풍조가 될 수도 있다. 「연쇄반응」이라해서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말도 안되는 소리」에 의해서 사회와 국가가 병들 수도 있다.

남의 이야기를 좋게 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나

쁘다고 할 것은 없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정도 남의 이야기를 즐기고 혈뜬는 것도 인간의 한 본성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모든 나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진정, 고소, 무고까지 간다면 이 사회는 살맛 았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 모두가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병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수년 전 일이다. 모 대학병원 구내에 택시승강장이 구분되어 차례로 타고 내리게 되었다. 한번은 차례를 지키지 않고 탄 손님이 있어서 교통정리원 아저씨, 운전기사, 타고 있는 승객 3자 간에 무슨 「말」이 오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뒤 그 승객은 내리고 운전기사는 아주 화난 얼굴로 택시를 몰고 10여명 기다리는 행렬앞을 그냥 지나쳐 빈차로 병원내를 빠져나가 버렸다. 그때 추운 날씨에 어서 자기 차례나 기다리던 행렬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셋이져 어떠한 말이 오고 갔기에 말도 안되는 결과가 왔을까.

한번은 외과교수인 내 친구가 찾아와서 이러한 보호자에게 뭐라하면 좋겠냐 물었다. 복강내 종양이 있는 여자환자에게 수술을 해야 된다 하니 그 부인의 남편이 와서 「의사선생님이 자신 있거던 100% 자신있다는 서약서를 쓰고 수술을 해주십시오」하더라. 전후사정을 듣고 보니 그 남편은 자기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수술 안하려는 구실을 의사에게 떠 넘긴 것이었다.

외래진료순서를 바꾼게 아니냐고 한 의심증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드니 그 뒷사람이 혹시 자기 것도 바뀐게 아니냐고 대들어 간호원을 울리는 사람, 백혈병 걸려 죽은 자식을 두고 주사 잘못놓아 죽게 했다고 의사를 고소와 진정을 거듭해서 괴롭히는 병든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부정, 진료하지 않은 것을 부단청구하는 사례를 막자는게 근본 취지 인줄 알고 있는데 환자 치료를 이리하라 저리하라는 보험공단 직원, 도무지 의학서적보다 더 어렵다. 거꾸로되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는 한 사람분

의 정신과환자 입원진료기록부를 통채로 복사해 보내란다. 무슨 이야기든지 다 이야기한 환자의 비밀이 적힌 기록부를 과연 환자나 그 가족이 이 사실을 안다면 뭐라 할까.

진료기록부에 적고 처방전에 적고 보험공단청구서에 기록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따로 환자마다 또 약품별로 대장을 만들어 적으라고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이나 중독을 막자는 것인데 이미 보사부에서 그러한 약을 취급할 자격을 주고서는 못미어서 3중 4중의 기록을 왜 하게 하는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대화자의 세대차이로 비롯된 예를 보자. 친척할머니가 시골서 자란 여자애를 집안간이라고 데려와 일도 시키고 나중에 시집까지 보내줄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하라는 일은 게을리하고 TV만 보기 일쑤였다. 그러던 차에 국민학교 다니는 손자녀석이 「할머니 숙이 누나 요즘 매일 편지를 쓰는데 조용필이 고추잠자리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하니 가뜩이나 못마땅해 하던 할머니 노발대발 「네 이년 네 주제에 조용필이 고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니 네가 대구온지 몇달된다고 바람이나」라고 호통을 쳤겠다. 숙이가 할머니의 오해를 풀어 드릴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한번 선입관에 사로잡힌 할머니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고, 결국 숙이는 밤새도록 울었을 뿐이었다. 갓난 애기의 울음만으로도 효험이 없이.

이러한 말, 개인과 개인의 말, 전달하는 자와 전달받는 자의 말, 이들 사이에 괴리현상이 생기듯이 많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신문, 방송 또는 단체나 국가간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고 남에게 요구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할 일이다. 그래서 「말같은 소리」로 가득한 세상, 인심 좋고 믿음 있는 멋진 세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골출신 숙이만 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의 눈물없는 소리」 그 알수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